

청년기본소득, 기본사회 향한 첫걸음



기고
최성원
고양시의원

지난 2년, 고양시는 당사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재정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안으로 일자리 정책과 취·창업 지원 정책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두 정책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은 고용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단순히 사용처로 평가하는 시각 역시 한계가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은 다른 지역 청년에 비해 행복감, 건강, 인식과 태도, 경제 활동 등에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효과는 단기 소비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같은 비가시적 영역에 있다.

고양시의 논란은 결국 오늘의 한국 사회가 청년의 삶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회 안전망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 정책이 아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라는 헌법 질서 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시혜가 아닌 권리의 문제이다.

동시에, 최소한의 구매력을 보장해 지역 소비와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투자다.

이 논의는 청년기본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일부 계층과 산업만 성장하는 이른바 'K자형 경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격차는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이 달라진 구조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자산과 기술, 정보의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회 이동성은 약화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불안은 개인이 아닌 구조적 불안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자동화의 확산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수만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

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사회로 인한 양극화에 대비해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논의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과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소득 정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급속한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 과정이다. 지금의 정책 선택은 단기적 성과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 안전망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기본사회는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모든 시민이 삶의 최소한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의 재설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바로 그 기본사회를 향한 첫 번째 정책적 실험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할 때, 기본사회를 향한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한 출발점이며, 기본사회는 그 위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다음 단계의 사회이다.

/고양시의원

다문화사회와 은행의 역할



기자 수첩
안승진
(금융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273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 초입에 진입했다.

한국과 인구·경제 규모가 비슷한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외국인 인구 비중은 10% 안팎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노동력 수요가 늘었고,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영향이다.

한국은 이미 농업 노동력의 60%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로 충족하고 있다. 광업·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많다.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 영암군은 주민의 21.1%가 외국인이며, 수도권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특히 높은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 비중은 13.3%에 달한다. 외국인은 우리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가 됐으며,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내국인 시장과 달리 외국인 시장은 여전히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은행권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외국인 고객 전용 콜센터를 개설하고, 지점에서 상품 상담이나 통역을 담당하는 외국인 직원을 앞세워 외국인 고객

를 공략한다.

은행권이 외국인 금융을 확대하며 수익성과 다양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불안이 산재해 있다. 외국인 전용 상품은 일반 대출과 비교해 부실률이 높고, 반년 안팎의 '파트타임' 형태로 채용되는 다문화·외국인 직원은 간단한 직무교육을 거쳐 가벼운 업무에만 투입된다.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다문화 행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배경이다. 전문성의 부재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융은 '신뢰의 산업'이다. 소비자의 기준도 다른 산업보다 더 엄격하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신뢰와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4일 (음 1월 8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구설수와 언행을 주의하세요. **60년생** 옳지 않은 일에 어쩔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72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도움을 얻습니다. **84년생** 이 성관계에 신중하세요.
- 49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욕심은 금물. **61년생** 스스로부터 다스리게 필요합니다. **73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 50년생**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날입니다. **62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74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86년생** 대인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 51년생**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63년생** 할 일이 아직도 많으니 피곤합니다. **75년생**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셔야 합니다. **87년생** 친구나 지인들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 52년생** 본인의 생각을 확실히 밝히는게 좋습니다. **64년생** 더 많은 노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76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88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 마세요.
- 53년생** 어려운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습니다. **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봅니다. **89년생** 여행을 떠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 54년생**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66년생** 낭비를 줄이고 더 검소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7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추진하세요. **90년생**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 55년생** 지금은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67년생** 성실해 추진해 온 일에 보람이 있습니다. **79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어려움을 빠져나오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 56년생**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68년생** 남 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0년생** 큰 변화가 올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92년생** 마음에 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 57년생** 주위사람때문에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9년생** 의견차이를 인정하는게 필요합니다. **81년생** 고집때문에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93년생**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쯤은 헤아려주세요.
- 58년생** 주위와 잘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7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82년생**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길한 하루입니다. **94년생** 친구와 연락하고 만나면 즐겁습니다.
- 59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년생** 화식이나 모임에 가면 행운이 있습니다. **8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지나친 음주나 과식은 금물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새해를 토정에 묻다

토정비결에 관해 담론을 쓴 적이 있다. 우리 선조들 특히 서민에게 친근한 위안이자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과 처신에 대한 지혜를 안내한 전통 예측서가 토정비결 아니던가? 토정비결의 진위에 대해 이런저런 설이 있지만 그런들 어떠하랴, 몇백 년을 한글로도 토가 달린 한민족의 토속 도참서로서 으뜸이다. 필자는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토정 선생에 관해 존경심을 갖는다. 토정에 관해 전해지는 얘기는 파고 또 파도 미답밖에 보이지 않는다. 역시 조선 동기의 대학자이자 그 인품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율곡 이이의 '경연일기'에는 토정 이 지함에 대한 인품평이 실려 있는데 실로 그 내용이 존경스럽고도 신비했다. 어찌 도인이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 잠시 소개해 보자면 "아산 현감 이지함은 어려서부터 욕심이 적어서 인색하지 않았다.

기질을 이상하게 타고나서 능히 즐기고 더운 것은 물론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었다. 겨울에 벌거숭이로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앉아 견딜 수 있었으며 열흘 동안 곡기를 끊고도 병이 나지 않았다.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두터워서 형제간에 있거나 없거나 자기 소유를 따지 않았다. 재물을 가볍게 여겨서 남에게 주기를 잘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음악, 여색에 담담하여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생의 비범함을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모로 비범했다. 역시 대학자이자 덕이 높은 도학자로도 불리는 서경덕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했다고 알려졌기에 이지함 선생이 토정비결의 저자라고 믿고 싶다. 토정비결의 내용을 보자면 뭔가 안 좋은 년수나 월수를 기술하면 반드시 이리저리하면 흉을 감하거나 피할 방법까지도 함께 기술하고 있음이니 어려운 가운데 솟아날 방편까지 소개하여 민초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소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5 | 3 | | 6 | | | | | 7 |
| | | 1 | 3 | | | | | 9 |
| | | | 9 | 7 | | | | 5 |
| | | | | | | 9 | 6 | 2 |
| | | 2 | | | | 7 | | |
| 8 | 7 | 5 | | | | | | |
| | 9 | | | 6 | 2 | | | |
| 2 | | | | 4 | 3 | | | 9 |
| 4 | | | | 9 | | 2 | 6 | |

| | | | | | | | | |
|---|---|---|---|---|---|---|---|---|
| | | 6 | 2 | | | | | 5 |
| 9 | | | | | 6 | | | |
| | | | | 3 | 4 | | | 1 |
| | 9 | 3 | | 6 | | | | 2 |
| | | 1 | 3 | | 8 | 4 | | |
| 4 | | | | 7 | | 5 | 1 | |
| 3 | | | 6 | 4 | | | | |
| | | | | 8 | | | | |
| 8 | | | | | 5 | 3 | | |

| | | | | | | | | |
|---|---|---|---|---|---|---|---|---|
| 9 | 2 | 1 | 6 | 8 | 8 | 2 | 9 | 7 |
| 8 | 6 | 8 | 7 | 9 | 2 | 9 | 1 | 2 |
| 7 | 2 | 9 | 2 | 9 | 1 | 8 | 6 | 8 |
| 1 | 8 | 7 | 9 | 6 | 2 | 9 | 2 | 8 |
| 9 | 8 | 2 | 8 | 1 | 7 | 9 | 6 | |
| 2 | 9 | 6 | 2 | 8 | 5 | 8 | 7 | 1 |
| 8 | 9 | 8 | 1 | 2 | 6 | 7 | 2 | 9 |
| 6 | 7 | 9 | 9 | 2 | 8 | 1 | 8 | 2 |
| 2 | 1 | 2 | 8 | 7 | 9 | 6 | 8 | 9 |

| | | | | | | | | |
|---|---|---|---|---|---|---|---|---|
| 2 | 2 | 8 | 9 | 6 | 1 | 7 | 8 | 9 |
| 6 | 7 | 9 | 8 | 2 | 8 | 9 | 1 | 2 |
| 9 | 8 | 1 | 2 | 7 | 9 | 6 | 2 | 8 |
| 9 | 1 | 9 | 2 | 2 | 6 | 8 | 9 | 7 |
| 8 | 6 | 7 | 8 | 9 | 8 | 1 | 2 | 2 |
| 2 | 2 | 8 | 1 | 9 | 7 | 8 | 6 | 9 |
| 1 | 9 | 6 | 7 | 8 | 2 | 2 | 9 | 8 |
| 8 | 8 | 2 | 9 | 1 | 9 | 2 | 7 | 6 |
| 7 | 9 | 2 | 6 | 8 | 2 | 9 | 8 | 1 |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58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2호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